

# 현대·기아차 美 고급차 점유율 10% 돌파

# 인기 만큼 쌓이는 수입차 재고

### 올 1~3월 7566대 판매...작년 동기 대비 106% 증가 6656대 팔린 신형 제네시스 돌풍...전체 판매 모델 3위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고급차 시장에서 점유율 10% 돌파라는 새 기록을 썼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에쿠스와 제네시스, K9 등 현대·기아차 3종은 올해 1~3월 미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3676대)에 비해 106% 증가한 7566대가 판매됐다. 이는 중대형 럭셔리 차급의 미국 시장 점유율 10.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고급차 3종의 판매 실적은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전체 점유율 7.9%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성과는 제네시스가 이끌었다. 제네시스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2653대)에 비해 2.5배 이상 많은 6656대의 판매실적을 나타냈다. 이런 괄목할 실적에 힘입어 차급 점유율도 3.5%에서 9.1%로 수직 상승했다. 에쿠스는 이 기간에 641대(0.9%), K9(현지명 K900)은 269대(0.4%)가 팔렸다.

지난해 4월 미국 시장에 첫선을 보인 신형 제네시스는 올 1분기에 BMW 5시리즈(1만2065대), 벤츠 E-클래스(1만1234대)에 이어 차급 내 전체 판매 모델 중 3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가 해당 차급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2008년 출시 후 처음이다.

제네시스는 미국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인 '북미 올해의 차 2015'에 포드 머스탱, 폭스바겐 골프와 함께 승용차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아쉽게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이 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제품 경쟁력을 입증받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안전성에서도 제네시스는 최고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5월 미국 고속도로보험안전협회(IIHS)에서 실시한 충돌시험에서 세계 최초로 29개 부문 전 항목 만점을 획득했다. 제네시스뿐 아니라 기아차의 최고급 대형 세단 K9도 미국 현지에서 꾸준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의 신형 에쿠스도 내년부터 미국시장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현대·기아차의 고급차 판매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달 미국 시장을 점검하며 올 한해 힘든 경영여건 속에서도 정면 승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고급차 판매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제네시스의 성공에 힘입어 벤츠, BMW, 아우디 등 전통의 고급차 브랜드와도 이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향후 선보일 신형 에쿠스를 통해 이들 차종을 넘어설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제네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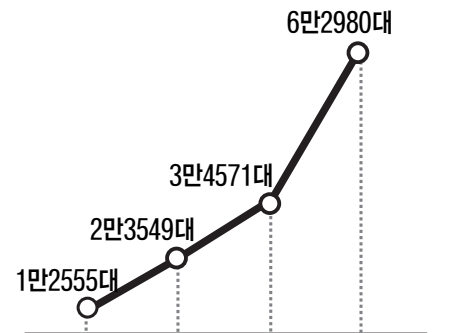


에쿠스



K9

수입차 국내 재고 추이



\* 수입차 수입대수(통관 기준)와 실제 판매대수 차이  
\* 조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자료 참조

작년 6만3000대  
3년전보다 8배 늘어

재고율도 매년 급증  
업체들 할인 등 판촉 강화

국내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재고물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차 가운데 팔리지 않은 재고물량은 6만3000대로, 3년 전보다 8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수입차 업체들이 차 값을 대폭 깎아주며 판촉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재고물량을 떨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입물량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25만9339대(통관기준·상용차 제외)였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가 19만6359대인 점을 고려하면 6만2980대는 팔리지 않고 쌓여 있었던 재고물량으로 추정된다.

2011년만 해도 재고물량은 8000대 수준이 었지만 3년 만에 재고대수가 5만5000대 가량 급증한 것이다.

수입대수에서 재고물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6.9%에 불과했으나 2012년 12.4%, 2013년 16.0% 등으로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 2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에도 국내에 4만4000여대가 수입돼 3만7000대 가량만 팔렸다. 이 기간 재고 비율은 16.7% 수준이지만 통상 하반기에 수입 물량이 대거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재고

비율 역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은 국내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수입차업계 1위인 BMW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0.6% 감소한 1만 15대를 기록한 것도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에서 배에 차를 싣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생산라인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다 보니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고가 급증하면서 수입차업체들은 올 들어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6 시행을 앞두고 유로5 모델 재고물량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유로6가 적용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는 팔 수가 없다.

지난달 아우디의 중형 세단 A6는 차량 기본가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유로6 뿐만 아니라 올 여름 부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BMW코리아도 SK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 값의 17~20%를 할인해 판매했다. /연합뉴스

# 충돌 경고에 뉴스 정보... '똑똑한 차'들이 몰려온다

### 완성차 업체 IT기술 탑재 경쟁

### 2020년 자동차 75%는 스마트카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 문을 여닫고 히터를 켜다. 운전 중 날씨·뉴스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본다. 앞서가는 보행자의 스마트폰을 감지한 차량이 '접근경보'를 울린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처럼 '똑똑한 차'들이 도로를 활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세계 자동차의 75%는 스마트카(Smart Car)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는 29억4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스마트카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탑재한 IoV(Internet of Vehicles) 형태로 IT기술과 자동차를 연결, 자동차가 주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

며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개념을 가리킨다.

IT 기술을 접목, 운전자의 편의뿐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측면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선 IoV뿐만 아니라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구축도 중요하다. ADAS는 차량에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등을 장착해 차량 외부환경을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교통신호와 주변차량 접근을 인지해 충돌을 경고해 주거나 실시간 교통상황이나 도로 위험요소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다. 이미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이런 차량을 공개한 바 있다. 포드는 차세대 음성작동 기술을 적용한 '싱크'

시스템을, 폭스바겐은 사람의 손짓에 따라 작동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GM은 구글의 차량용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의 카플레이 등을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전시했다.

스마트카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융합이 화두다. LG전자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12월 무인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stereo camera system)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전방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관찰하고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로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무인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이다. 트렌드포스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뿐 아니라 IT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정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업체 등과의 협업을 증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 헤드램프 전구 개인이 교체 가능합니다

Q) 자동차 헤드램프 전구 개인이 교체 할 수는 없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베일 수도 있으니 가급적 가까운 서비스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의견) 불가피한 경우 자동차 헤드램프 전구를 교체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닛을 열고, 헤드램프 뒷캡슐을 엽니다. 그리고 배선단자를 탈거하고 전구 고정키를 해제한 다음 전구를 빼고, 새 것을 끼운 후 역순으로 조립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이 주변에 간섭당해 절상을 당할 우려가 크므로 가급적이면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벽진동 대지 724㎡ 매 4억9천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접)
- 광산구 삼도동 1층주거지역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형  
☎ 010-5536-0382

##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 ▶매가: 평당 15만원
-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

##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 ▶연소득: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 ▶장소: 해남읍서 대흥사 가는길목
-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 ▶건평: 주택4동+캠핑카
-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

##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면적: 3071평방미터 (계획관리)
- ▶매가: 9천만원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면적: 3848평방미터 (계획관리)
- ▶매가: 5천5백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 국조화환 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국조화환 3단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전국 ▶ 70,000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